



제주 천연가스시대 개막... 내달 첫 공급

<LNG>

8일 삼양발전소 공급... 2029년까지 15만세대 보급 목표 대규모 아파트 등 민간 보급은 올 연말 이후 가능할 듯

LNG(액화천연가스) 연료가 오는 10월 8일 제주에 첫 공급되며 LNG 시대의 개막을 알리게 된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가스공사 등에 따르면 애월항 LNG인수기지 및 주배관망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10월 8일 삼양LNG복합발전소에 천연가스가 공급된다.

다만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 대규모 아파트 등에 대한 민간 수요 공급은 제반 준비 부족 등으로 빨라야

올 연말쯤 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천연가스가 첫 공급되는 삼양 LNG복합발전소는 2694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12월 준공된 가운데 발전 용량 240MW로 제주 전력 공급의 20%를 담당하게 된다. 기존 중유와 디젤 연료로 가동했던 삼양발전소에 천연가스가 공급되면서 초기세면지와 같은 오염물질 배출이 없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게 된다.

현재 액화석유가스에 공기를 혼합한 LPG+Air 방식의 도시가스를 보급 받고 있는 2만9615세대(제주시 2만5409세대, 서귀포시 4206세대)는 빠르면 올 연말부터 LNG+Air로 연료를 공급 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천연가스는 LPG 프로판가스에 비해 가격이 30% 이상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주도는 오는 2029년까지 15만 8000세대에 천연가스를 공급, 도시가스 보급률을 57%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제주지역 천연가스 공급은 2010년 정부가 수립한 제10차 장기 천연가

스 보급계획에 반영된 국가 프로젝트로, 인수기지 건설에 3135억원과 공급 배관 설치 1900억원 등 총 5035억원이 투입됐다. 주 배관망(500mm)은 애월항 인수기지~삼양 LNG발전소 37.7km, 애월항~서귀포 혁신도시 43.3km 등 총 81km다. 애월항 인수기지는 제주에서 6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9만kℓ의 저장탱크가 설치됐다.

한편 7512㎡급 액화천연가스(LNG) 내항 수송선 'SM JEJU LNG1' 호선이 통영기지에서 출발해 24일 애월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소상공인 우수상품 박람회 27~28일 누웨마루 거리서

제주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상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2019 소상공인 우수상품 박람회'가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제주시 연동 누웨마루거리 일대에서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도 경제진흥원과 사단법인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에는 도내 소상공인 40여개 업체가 참여해 지역 우수상품을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개·폐막식 공연, 제주 소상공인 우수상품 전시·판매, 향토음식 장터, 각종 이벤트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홍보 부스에서는 발효, 건조 등을 통해 만든 가공식품, 향장품, 공예품 등을 전시·판매할 예정이며, 천연버무리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등 체험도 진행된다.

27일 초대 가수 설하운, 단진 등이 식전·후 공연을 하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비보잉 댄스팀 공연, 소상공인 노래자랑 등이 펼쳐진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가격파동' 마늘·양파 내년 덜 심는다

가격경쟁 우려 평년비 3.7%·18.2% 각각 줄어

올해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떨어진 마늘과 양파에 대한 내년산 도내 재배면적이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 다만, 전국적으로 양파재배면적은 크게 줄지만 마늘의 경우는 난지형(남도종)을 중심으로 평년 대비 2% 늘 것으로 보인다.

2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에 따르면 2020년산 마늘 재배의 양면적은 9월 중순 기준, 전년보다 9% 줄고 평년보다 2.1% 늘 것으로 예상된다. 과잉생산에 따른 올해산 마늘 가격 하락이 주된 감소 요인이다.

제주지역 마늘 재배의 양면적은 평년 대비 3.7%, 지난해에 견줘서는 2.9% 각각 줄 전망이다. 하지만 영남과 충청도를 중심으로 제주에서 재배하는 난지형 재배의 양면적이 평년보다 10.4%와 9.7% 각각 많아 전체 재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는 마늘과 양파에 대한 내년산 도내 재배면적이 평년에 비해 각각 3.7%, 18.2% 각각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은 양파 수확하는 모습. 한라일보DB

면적이 늘며 가격 경쟁이 우려된다.

2020년산 전체 마늘 재배의 양면적은 2만4950~2만5120ha로 지난해 2만7689ha에 비해 적고, 평년의 2만4603ha보다는 크다. 생산량은 31만t 수준으로 평년의 30만5000t보다는 많을 것으로 보인다.

2020년산 양파 재배의 양면적은 평년 대비 14.2% 감소할 전망이다. 특

히 조생종양파 주산지인 제주는 18.2% 가량 줄 것으로 조사됐다.

조생종양파의 재배면적은 평년과 비슷한 2797~2990ha로 전년도에 견줘 19.6%가량 준다. 올해 과잉생산에 따른 저장양파에 의한 가격 하락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재배면적을 결정할 때 주의가 요구된다.

백금기기자 haru@ihalla.com

로또복권 <제877회>

당첨번호	5, 17, 18, 22, 23, 43
2 등 보너스숫자	12
1 등	6개 숫자 일치
2 등	5개 숫자+보너스숫자 일치
3 등	5개 숫자 일치
4 등	4개 숫자 일치
5 등	3개 숫자 일치

제주-인천 뱃길 운항 재개 무산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끊긴 제주-인천 뱃길을 잇기 위한 시도가 다시 무산됐다.

2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제주-인천 항로 여객선 신규 운송사업자인 대저건설이 지난 20일 조건부 면허 포기 의사를 인천해수

청에 전달했다.

지난해 4월 제주-인천 항로 여객선 운송사업자로 선정된 대저건설은 이 항로에 2만4700t급 여객선을 띄우기 위해 선박과 인력 등을 준비해 왔지만 인천항 접안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비용 부담이 늘자 사

업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해수청은 제주-인천 항로 여객선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기 위해 다음달 공개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제주-인천 뱃길은 2014년 5월 세월호 참사 이후 끊겼다. 세월호(6825t급)와 오하마나호(6322t급)를 운항하던 청해진해운이 면허 취소를 당한 이후 5년 넘게 여객선 운송사업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상민기자

창립기념일을 축하합니다

금주(9월 23일~29일)의 창립기념일 <창립일순>		
회사명	대표	창립일
성보자동차공업사	김길생	2000년 9월 23일
빈에듀컬처	장빈	2006년 9월 27일
벽강종합건설(주)	이시복	1994년 9월 28일

9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 창립일을 맞는 회사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750-2271)

"자동차 종합 관리 서비스 제공"

▶성보자동차공업사=23일 창립 19주년을 맞는 성보자동차공업사(대표 김길생·사진)는 제주시 화북1동 SK동부주유소 맞은편으로 사육을 이전해 고객에게 더 나은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해 있다. 성보자동차공업사는 신속·정확·무결점 자동차 정비로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 24시간 견인 대기 및 자동차 자체검사, 특수열처리도장 등 최신 시설과 장비로 완벽한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김길생 대표는 "앞으로도 고품질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723-4411.

"교육 문화 경제교류 사업에 앞장"

▶빈에듀컬처=27일 개원 13주년을 맞는 빈에듀컬처(대표 장빈·사진)는 도내 최초로 서비스교육원을 설립해 교육·문화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제주 교육여행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해 전국지방의회 의정 연수와 여행업, MICE 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난 13년 동안 도내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친절클리닉과 문화 축제 행사를 실시해 50여개의 기관 표창장을 받았고 올해 대한민국의학공헌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장빈 대표는 "최근 제주시 합림읍에 독일로렐라이와인제주센터를 설립해 와인이야기로 글로벌 경제문화 교류에도 앞장 서고 있다"고 말했다. ☎ 713-1070.

"축적된 기술력 내실 갖춘 업체로 성장"

▶벽강종합건설(주)=28일 창립 25주년을 맞는 벽강종합건설(주)(대표 이시복·사진)은 일반건설업체로 현재 노형동 벽강하이브타워 7차 신축공사와 제주환경순환센터 조성공사, 조천 주민교류센터 조성공사, 제주사대부중 시청각실 신축공사 등을 맡고 있으며 철저한 성실 공사로 탁월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시복 대표는 "축적된 기술력으로 성실 시공 및 하자 없는 공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연과 인간의 공존, 미래 지향적인 고품질 시공으로 더욱 신뢰를 받는 등 건설·환경문화를 견인하는 업체가 되겠다"고 말했다. ☎ 744-8000.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현장코칭 숙련인력 양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분부는 '일대일 현장코칭 숙련인력 양성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과 구직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측은 이 사업을 통해 신규인력이 필요한 기업과 근로자를 서로 연결하고 근로자

에게 전문가로부터 직무에 관한 교육과 현장 실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 참여기업에게는 근로자 인건비 명목으로 최대 3개월간 매월 6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홈페이지(job.kosmes.or.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이상민기자

공인중개사 제주컨설팅 ☎ 726-4585 / 010-8660-1263

등록번호 : 가 4402-408 대표/공인중개사 박원희

와흘리 계획관리지역 창고 대지 2,100㎡ 창고 2동 640㎡

- 구좌읍 김녕리 4,300㎡(자연녹지, 맹지)
- 거로마을 주거지역 1600㎡
- 남원 하례리 2300㎡ 자연녹지(과)
- 대정읍 무릉리 전 12,000㎡(계획관리지역)
- 법원동 2400㎡, 5000㎡ 해안도로 인근 (건축허가 특)
- 서귀포 강정동 2100㎡ 자연녹지(과)

화북2동(공업단지맞은편) 대 2,500㎡ 건 400㎡ 화북2동(공업단지맞은편) 대 1600㎡, 건 160㎡

- 서귀포 법환동 오피스텔 38.19㎡ 분양가 이하 매매
- 삼도1동 2층 주택 대 165㎡, 건 150㎡
- 애월 유수암리 2,500㎡(계획관리, 임, 2차선점)
- 조천읍 북촌리 전 3,000㎡(자연녹지, 맹지)
- 조천 신촌리 자연녹지 1,600㎡(대도로점)
- 한경면 저지리 전 (11,000㎡) 계획관리지역

동부공인중개사 ☎ 010-2800-4595 / 064-747-5115

신제주로터리 현일빌딩 3F 대표/공인중개사 부문복

※김녕해안도로점 2474㎡ 15억 원

- 해안동마을 맹지 대674㎡/매가50㎡ 5억
- 해안동 생관아(목장) 맹지28,842㎡ 6억
- 상명리 조림식주택60㎡/대430㎡ 1.5억
- 수선봉 저수지인근 카페음영관광호 62㎡ 3.1억
- 판포 바다경관 구 자연녹지 3028㎡ 6.4억 원

※하례5.16도로동축과수원 8856㎡ 11억 원

- 아라동기차촌내 1090㎡ 9.24억
- 봉성 시멘트도점 임야 842㎡ 6000만원
- 고성외고인근2차선점 대지조성 481㎡ 6.5억 원
- 유수암 2차선 변 주택착공 토지 519㎡ 2.5억
- 조천해안도로인근 대지 502㎡ 3.35억

※중문고인근 자연녹지 638㎡ 3.3억

- 선홍김은오름 북쪽 주택용지 1002㎡ 2.2억
- 신촌 2층주거지역 대 157㎡ 1.7억
- 우도하고수해수용정인근 10,323㎡ 12.5억 원
- 월정리 해수욕장 택지조성지 393㎡ 6.5억
- 오리정실 마을내 587㎡ 7.65억 원

(주)제주태양냉동수산물 (냉동수산물 전문 종합 식자재 유통)

SEA FOOD

(각종 활어·해산물·수산물·어패류) 식당·호텔·학교·기업·관광객 납품 화포장 배달 전문 · 제주지역 당일주문 당일배송 · 서귀포지역 및 시외지역 당일주문 익일배송

냉동수산물

- 뚝배기재료 ·일식재료 ·옥 돔 ·꽃 게
- 해물탕재료 ·한식재료 ·동 태 ·대 구
- 알 탕 재 료 ·가 오 리 ·고 등 어 ·낙 지
- 중화요리재료 ·쭈 꾸 미 ·갈 치 ·아 구
- 소주방재료 ·공 치 ·메 로 ·성게알
- 횃 집 재 료 ·문 어 ·한 치 ·전 북

활어해산물

- 광 어 ·멍 게 ·한 치
- 우 력 ·소 라 ·방 어
- 참 돔 ·전 북 ·오 도 리
- 활 고 등 어 ·개 불 ·각종해산물
- 자연산활어 ·생 연 어
- 문 어 ·전 어

판매장에서 도매가로 회와 해산물을 구입후 식당에서 드실 수 있습니다.

판매장 용담동 387(용담읍 수산센터) 식 당 용담동 386(월척수산)

Tel. 064)722-6308 Fax. 064)751-6308 www.jejusunmall.com